농산물 포장 및 물류 정책 방향

Policy of Packaging and Logistics Farm Produce

김진명 / 농림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1. 서언

한 제품이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그것은 가격에서는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도 최종 소비단계에서 경쟁력은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이며, 가격경쟁력은 농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물류개선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품질경쟁력은 안전성과 함께 균질화된 규격과 등급을 갖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농산물이 유통과정상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류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반이 되는 것이 농산물의 물류개선 및 물류표준화이다.

일반적으로 물류(物流)란 생산, 유통, 판매, 조달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폐기, 환원, 소비자 복지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농산물에서 물류도 농산물이 상품으로서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물리적 흐름으로 수 · 배송, 보관, 하역, 선별 · 포장 및 이와 관련된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물류라는 말은 1920년대 미국의 학자가 'physical distribution'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고, 그 이후 비즈니스 분야에 점차 도입되어 사용되면서 1980년대에는 'logistics'라는 용어가 더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유통근대화촉진계획법에서 처음으로 물류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유통시장이 개방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책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도 1990년대 중반이후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을 마련하는 등 물류비절감을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는 농산물 유통개혁을 위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개혁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농산물의 규격화 · 등급화 등 표준화

라든지 규격출하 유도 등 유통부분의 운영상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의 핵심요체인 것이다.

2. 농산물의 규격출하 현황

농산물은 그 특성상 유통비용이 많고 그 중에서도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국가전체 물류비는 '98년 현재 74조 1,700억원으로 GDP 444조4천억원의 16.7%이나 농산물 물류비는 '98년 현재 6조6천억원으로 생산자출하액 26조6,982억원의 24.7%로 타 산업부분에 비해 월등히 높아 물류비 절감을 위해 더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처럼 농산물의 물류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우선 농산물의 상품적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부패가 쉽고, 부피에 비해 가격이 낮아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물동량의 계절적인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형태가 부정형이며 다양하다는 점이다. 또한 생산농가가 다수인 반면 각각의 출하물량은 소량이며,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표준화 · 기계화 · 자동화가 미흡하여 유통과정에서 감모 발생율이 높아 일반 공산품에 비해 유통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농산물의 소비자구입총액('98)은 46조 1,476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유통마진이 19조 4,584억원으로 농업인이 생산하여 수취하는 금액이나 유통 과정상의 유통비용 및 상인들의 유통마진이 비슷한 실정이다.

따라서 물류비 절감없이는 유통개혁을 이룰 수 없고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정부는 '98년 유통개혁대책을 마련하여 농산물 유통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부의 유통개혁 대책의 내용은 하드웨어면에서는 국가전체 물류기반확충의 한 부분으로 농산물 물류시설 기반 마련,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도매시장, 물류센터에 포장화 및 규격출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의 이러한 유통개혁의 결과가 유통환경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농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대도시 5개지역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의 포장화율은 '98년 75.1%, '99년 79.3%, '00년 88%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농산물 126개 품목에 대해서 표준규격을 정하고 있는데 표준규격출하율도 '99년 26.9%에서 '00년 39.8%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의 포장화 및 표준규격출하율이 높아진 것은 소비자 및 일반시민들의 농산물 유통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유통종사자들의 의식이 변화해 가면서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이에 정부의 유통개혁 정책이 농산물 포장화를 앞당길 수 있었다.

3.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과거 보리고개를 경험하면서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친환경이니 안전농산물이니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농산물의 공급과잉이 발생하면서 특히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

타나고 있다.

농산물의 해외시장이 개방되어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시설재배 및 생산기술의 발달로 지역 간 특산물의 차이가 사라지고 거의 모든 농산물이 연중 생산이 가능해지는 등 실로 농산물 공급과잉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함께 소비자들의 경제수준의 향상은 농산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영양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선호체계와 함께 핵가족화의 진전은 소비자 중심의 소포장 유통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발달과 디지털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따른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도입을 통해 유통경로가 다원화되면서 유통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의 유통과정의 전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그 기본에 농산물의 포장화가 전제되고 있다.

공급부분에서는 연중생산과 저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하고 감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부착한 고급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여야 하고, 소비자들은 과거의 대량구매에서 소량구매로 바뀌면서 믿을 수 있는 오픈형 포장재를 원하고 있으며, 유통경로면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정착되기 위해 바코드가 포장재에 부착된 농산물이 유통되어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4. 농산물규격출하를 위한 지원시책

4-1. 소비자 중심으로 농산물 표준규격전면개편

농산물 물류표준화의 초석이 되는 것은 규격의 표준화와 이를 효율성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정부는 농산물의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표준규격을 정하여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 표준규격품은 농산물 126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가 정부에서 정한 표준규격으로 포장하여 출하한 경우 포장재 겉면에 '一心'마크를 붙여 표준규격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장규격은 주로 도매시장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대포장규격 위주의 수송용으로 제정되어 소비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는 등 유통비용의 추가발생을 유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등급규격 역시 품질표시기준이 모호하고 표시방법이 복잡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상품의 신뢰성, 투명성이 떨어져 통명 · 수의거래와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유통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급규격을 첫째, 과거 품목별 종합규격에서 품종별 규격으로 개편하여 규격을 다양화 · 차별화하고 둘째, 포장화 · 규격화율이 높은 품목중심으로 당도 · 색택 등 내부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포장규격은 첫째, 도매시장출하를 위한 수송용 규격(겉포장)과 소비자용(속포장) 규격으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둘째, 속박이 등을 근절하기 위한 소포장(5kg이하)규격 및 단층 · 개방형 규격이 확대되도록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00년도 29개 품목 63 품종에 대하여 표준규격을 개정하였으며 금년에도 97개품목에 대하여 표준규격을 개편중에 있어 하반기에는 모든 농산물의 표준규격이 새로이 개정되어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4-2. 디지털 유통을 위한 표준바코드 도입

정부는 규격출하정책을 소비자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디지털유통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앞으로 물류표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표준바코드의 성공적인 도입이다. 표준바코드의 성공적인 도입이야말로 농산물 규격출하의 핵심으로 전자상거래, 전자경매 등 향후 미래 농산물 유통의 성공을 결정하게 되는 열쇠이다.

이러한 바코드의 필요성은 농협을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고 , 이에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도 통일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이며 표준바코드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농산물 표준화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바코드 사용실태를 보면 3가지 형태의 바코드가 사용되고 있는데 우선 농관원과 농림부 정보통계관실에서 통계자료를 위해 사용되는 표준코드(18자리)라는 것이 있고, 둘째, 농협자체코드(13자리)가 있으며 셋째, 일부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EAN코드(13자리)가 있다. 이러한 코드들을 정리하여 표준바코드를 정하는 것이 디지털유통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표준바코드와 관련해서는 표준바코드에 담을 정보의 내용과 정보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정부는 농산물의 126개 품목의 표준규격 개정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바코드 도입방안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표준바코드가 도입되어 사용될 경우 전자카탈로그 작성, 전자상거래, 전자경매 등에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바 농산물의 디지털시대의 소프트웨어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년부터 이미 바코드부착 농산물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포장재비의 30%를 지원하도록 17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중이다.

4-3. 포장재비 지원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정부는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장화가 미흡한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84년부터 포장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왔다. 특히 '00년에는 187,000천매에 대하여 총사업비 1,383억원 중 국고로 415억원을 지원하였고, '01년에는 301,425천매에 대하여 총사업비 2,227억원 중 국고로 668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포장재 물량은 농산물 포장유통량의 18%('01)에 해당하는 것이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규격출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년부터는 포장화가 미흡한 품목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실현을 위하여 품질인증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디지털유통을 위해 바코드가 부착된 농산물을 추가로 포장재비 지원대상에 포

함시켰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 억제시책 추진대상이었던 무, 배추, 마늘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으로 지정하여 공영도매시장 및 물류센터로 출하시 포장재비의 30%와 출하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여 쓰레기 발생억제를 통한 환경개선과 유사 도매시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러한 시책을 확대하면서도 규격출하사업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나 방식을 대폭 개선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예산도 전체 농산물 포장재 소요량(1,980,689천매)의 20%수준인 396,183천매를 대상 79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요구(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추진으로 '99년 기준 사과, 배 등 과실류는 포장화가 정착되어 포장화율이 96%이상이며, 무·배추 등 채소류의 포장화율의 경우도 과거 10%미만에서 25%로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자가 바라는 등급화의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4-4. 물류기기 지원을 통한 물류표준화 추진

정부는 '97년부터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과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등에 국가표준규격에 맞는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등 물류기기 구입비와 유통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물류기기구입지원외에도 물류기기 공동이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여 물류기기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료의 70%까지를 보조하여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기기가 물류개선을 위하여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산물의 규격출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물류시설의 확충, 물류기기의 보급 확대와 함께 물류표준화의 핵심요소는 농산물의 규격출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결어

농산물에 있어서 물류표준화를 이루는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쟁력은 앞에서도 말한 바 있듯이 가격경쟁력만이 아니라 품질경쟁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물류표준화의 목표를 3S1L(Speedy, Safely, Surely, Low)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빠르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물류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류의 첫 단계로 유통과정 즉 운송, 보관, 거래, 사용 등에 있어 그 가치와 상태를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을 시공한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 질 때 물류의 마지막단계인 소비자에게 경쟁력있는 농산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포장은 물류의 시작이자 끝' 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시책도 규격포장화 비용 지원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다. ko